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2월

발행일 : 2024년 1월 31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 <팀코리아협의체 동정>한국교육원, 중부지역 한국어교원 집중연수개최..... 8
- ✓ <기업탐방>아워홈 베트남 9
- ✓ <법률>베트남 경쟁법 살펴보기.....전현우 변호사 12
- ✓ <회계>회계감사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엄진용 회계사 15
- ✓ <중재>중재원의 다른 분쟁해결 서비스.....대한상사중재원 17
- ✓ <통관>베트남 세관의 통관 신고 및 품목분류 유의사항.....박민설 관세사 18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닥락성> 20
- ✓ <이달의 보고서>2024 베트남 진출전략..... 27
-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28
-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33





2023년 베트남 다낭시 경제리뷰 및 2024년 전망

- 2023년 다낭시의 성장률은 2.58%로 63개 성시 중 54위
- 서비스업이 경제성장 견인,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 투자유치 확대 필요

2023년 경제동향 전반

2023년 다낭시 경제는 전고하저의 흐름 속에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2023년 연평균 성장률은 2.58%에 그쳤다.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에서 2019년까지 다낭시의 연평균 성장률이 7~9%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팬데믹으로부터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베트남 내 63개 성·시의 지역총생산이 발표됐는데, 다낭의 지역총생산 증가율은 5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5개 직할시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직할시는 하이퐁으로 10.34% 성장했고 하노이(6.27%), 호치민(5.81%), 껀터(5.7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다낭시의 경제구조를 산업별로 나눠보면 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3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는 공업 및 건설업이 18.5%, 농림어업이 1.95%, 정부부문이 9.21%의 비중을 각각 차지한다. 서비스업의 업황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사실상 다낭시 경제 좌지우지하고 있다. 2023년 각 산업별로 전년대비 서비스업은 4.1%, 농림어업은 1.19% 성장했으나 공업 및 건설업은 -2.05%로 역성장했다. 2023년도에 서비스업의 성장이 미약한 가운데 공업 및 건설업이 부진했던 것이 낮은 경제성장률로 이어진 것이다.

2024년 경제 발전계획과 시사점

다낭시는 2023년 11월 말 '2050년 비전 및 2021~2030년 계획' 발표를 통해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베트남 중부지역의 금융 거점과 더불어 마이크로 전자 기술, 칩 기술 및 반도체 회로 품목에 중점을 두어 국가 첨단 산업 및 지원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통해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 정보통신 서비스 등 관광업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투자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역성장을 기록한 공업 및 건설 부문에서 산업생산지수를 2023년 대비 3% 이상 제고할 계획이며 식품제조업, 전자 제품 등에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지원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11월 다낭시 인민위원회의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ICT 및 반도체 분야의 미국 주요 기업들과 만남을 가졌다. 글로벌 반도체 칩 설계기업인 Synopsys와 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코르보(Qorvo), 마벨(Marvell), 엔비디아(Nvidia), 인텔(Intel Corporation)과 같은 반도체 분야 선도 기업들을 방문해 다낭시에 연구센터 설립 및 관련 시설 투자유치를 적극 제안하였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인력양성 사업이 향후 어느 정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정체된 다낭시의 경제 회복을 이끌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렴하고 풍부한 베트남 노동력의 미래, 산업용 로봇

- 임금 인상 필요 없는 로봇, 공급망 제조 거점 베트남에 매력적
- 전기 전자산업 외 신규 분야 틈새시장 노려야

‘베트남 노동력의 한계, 산업용 로봇에게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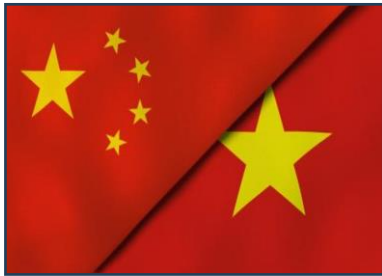
베트남의 노동 생산성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여전히 뒤쳐져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베트남의 노동 생산성은 189개국 중 124위를 기록했다. 한편, 약 130만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의 전자·전기산업에서 이들은 대부분 공급망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후방산업, 즉 기초적인 가공 및 조립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 초과 근무 시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력은 풍부하나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노동의 질이 낮고,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 노동 시장의 특성은 산업용 로봇 산업에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물론 향후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은 재교육, 사회 보장 등과 연결이 되기에 정부와 시장 양측에서 모두 필요할 것이다.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의 경쟁

베트남의 산업용 로봇 시장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자동화 및 정밀기계·정밀부품 분야로 유명한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부 베트남 현지 기업도 로봇 산업에 진출하거나 입지를 넓히고 있다. 토시(Tosy)는 베트남 최초로 로봇을 제작한 기업으로 해외에도 잘 알려져 있다. IDEA는 3축 로봇, 6축 로봇, 분류 로봇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 산업용 로봇을 수출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수량이 많지 않다. IDEA의 재정 능력은 로봇을 대량 생산하기에는 부족하기에 현재 소량 주문 생산만 진행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의 경쟁시사점 및 진출 유망 분야

베트남은 아직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 강점인 나라다. 그러나 임금이 매년 급격하게 상승 중이며,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KOTRA 하노이무역관은 ‘2024 베트남 진출전략[바로가기]’에서 산업용 로봇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본 기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았다. 한국의 로봇 관련 기업들은 베트남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글로벌 제조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의 산업용 로봇 시장 진출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주로 일본 기업이 활약하고 있는 전자·전기 산업 및 자동차 산업용 로봇 시장 외에 식품산업, 제약산업 등 자동화 수요가 새롭게 생기고 있는 산업을 틈새시장으로서 노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제조 공장들은 특정 라인별 산업용 로봇보다는 패키지 형태의 통합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베트남 제조 공장에 종합적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의 제조산업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2월 베트남 방문 전격 분석

- **베-중, 경제안보 사회문화분야 36개 협정 체결**
-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한미 중 주요국 모두와 협력 관계 강화**

‘대쪽 같았던’ 2023년 베트남의 경제외교

2023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자는 베트남의 외교 원칙인 ‘대나무 외교 (Bamboo Diplomacy)’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했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및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9월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특히 12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며 양국 관계가 ‘미래 공유 공동체’로 발전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과 중국은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며 36개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공동성명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하여 국내외 언론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올해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5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최근 베트남과 미국의 외교 관계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베트남과 중국 간 외교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강화됐다면, 베트남에 대한 구애에 있어 중국이 미국에 대해 판정승을 거둘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운명공동체(common destiny)’를 들고 온 중국이 ‘미래 공유 공동체(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라는 표현에 만족해야 했다. 12월 베-중 정상회담 관련된 외교 문서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연결’이다. 중국은 대나무 외교를 표방하며 실리를 챙기는 베트남을 포섭하기 위해 과거로부터의 연결성(문화적·정치적 유대)을 들어 국경은 물론 디지털 세계에서 연결, 문화적 연결 등 다방면에서의 연결을 공동성명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이 미래에도 지속, 심화될 수 있도록 양국이 ‘미래를 공유’하는 것에는 베트남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36개 협정문 목록

공동성명문에서 약속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총 36개의 협정문을 체결했다. 협정문의 목록만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었을 뿐 각 협정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36개 중 절반 정도의 문서는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분석된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방문 직전, 베트남 인민보에 기고한 기고문과 공동성명문에서 모두 언급된 ‘광물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정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로 알려진 베트남과 ‘희토류 공급’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한 미국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의 희토류에 주목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 24년 1월 외국인직접투자,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

24년 1월 1~20일 FDI 유치액은 2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2% 증가함. 190개 프로젝트 대상 20억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했음. 신규 프로젝트 수 및 신규 투자 유치액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2%, 66.9% 증가한 수치임.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14억 달러 투자했으며, 일본, 사모아, 중국, 홍콩에 이어 한국은 4,600만 달러를 투자해 6위임.

[Vietnam news 1.29]

▶ 베트남, 2030년까지의 석탄 산업 발전 전략 승인

'2030년까지의 석탄 산업 발전 전략, 2045년까지의 비전' 부총리 승인이 완료됨. 결정문 제55/QD-TTg호에 따르면, 채탄량은 2030년까지 4,500만~5,000만 톤, 2031~2045년에는 3,800만~4,000만 톤 예상됨. 2040년 이전에 홍강(Red River) 석탄 분지에서 시험 개발을 시작하여, 성공 시 2050년 이전에 상업화 단계의 채굴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Vietnam news 1.18]

▶ 베트남, '23년 말까지 누적 4,689억 달러 FDI 유치

베트남은 '23년 한 해 동안 366억 달러 FDI 투자를 유치함. '88년 통계 집계 이후 '23년까지 총 4,689억 달러 규모의 39,140개 투자 프로젝트 유치했으며 '23년 실적은 전년 대비 32% 이상 증가한 366억 달러임. 누적 기준 투자 유치 1위 지역은 호치민으로 현재까지 총 576억 달러 규모의 12,398개 프로젝트 유치함. 하노이는 2위, 총 411억 달러 규모의 7,363개 프로젝트를 유치함.

[Vietnam news 1.17]

▶ 베트남 국회, 제5차 임시회의 개최

베트남 국회 제 5차 임시회의가 1월 15일~19일 5일간 개최됨. 토지법 개정안 초안, 신용기관법 개정안 초안, 국가 목표 이행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 관련 결의안 초안, '21~25년 중기 공공투자 계획 보완 등 심의·승인 예정 4가지 중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예정임.

[Vietnam news 1.15]

▶ 베트남 건설부, 광물 개발 규모 확대 계획 승인

베트남 건설부(MOC)는 본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섬과 대륙붕으로 광물 개발 규모 확대 예정임. '23년 12월 25일, '2021~2030년 기간의 광물 탐사, 개발, 가공 및 건설 자재로의 사용 계획, 2050년까지의 비전' 결정문(제 1626/QD-TTg호) 총리의 승인을 받았으며 동 계획에 따라 518개의 광물 지역 탐사 및 931개의 광업 면허 발급 예정으로 계획에 포함된 총 자원량은 266억 톤의 다양한 종류의 광물임. 신규 계획을 통해 기존 계획으로 인한 광물 지역과 도시 개발 지역 간 중첩 문제 해결 노력 예정.

[Vietnam news 1.15]

▶ '23년 베트남산 후추, 수출액 6%↓ · 수출량 16.6%↑

베트남산 후추의 평균 수출 가격이 톤당 3,420달러로 전년 대비 19.4% 하락함. 베트남, 현재 전 세계 후추 공

급량의 60% 차지함. '23년 기준 베트남산 후추 최대 구매국은 여전히 미국으로 수출액의 23.5%를 차지했으며, 중국(14.1%), 인도(5.4%), 독일(4.3%)이 그 뒤를 이음. 베트남은 EVFTA로 인해 후추 관세가 면제된 덕분에 다른 후추 수출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재배 면적 감소 및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 공급 감소로 '24년도 베트남 후추 수출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VN express 1.9]

▶ 베트남 스탠다드차타드, 2024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6.7%

베트남 상·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각 6.2%, 6.9%임. 인플레이션률은 2023년 3.3%에서 2024년 5.5%로 상승 예상되며, 기준금리는 '24년 3분기까지 4.5% 동결 후 4분기에 50bp 인상 전망됨. 달러 환율, '24년 말까지 2만 4,000동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Vietnam Banks Association 1.8]

▶ 베트남 빈그룹 회장, 빈패스트의 CEO로 취임

팜브엉(Pham Nhat Vuong) 빈그룹 회장이 '24년 1월부터 빈패스트 경영 전면에 등장함. 팜브엉 회장은 글로벌 생산·판매 및 시장 전략을 포함한 빈패스트 운영 전반 직접 관리·감독 예정임. 빈그룹은 전기차 분야 자회사인 빈패스트에 지난 1~3분기 총 23조 동(9.4억 달러)을 대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임.

[Dan Tri Newspaper 1.6]

▶ 베트남, 소비자 구매력 약화로 저가 선물 수요 증가

베트남 현지언론 VnExpress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 침체로 인해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었음. 베트남 소비자들은 베트남 최대 명절인 Tet(땃, 베트남 구정)에 200,000VND 미만의 저렴한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경기침체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연말 보너스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로 인해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저가용 선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저가형 선물 판매 업체들의 수익은 2023년에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VN express 1.6]

▶ 베트남, 2024년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 전망

베트남 내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2024년에도 베트남 경제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압박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베트남 경제금융연구소와 재무부 물가관리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세계 경제가 2024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베트남의 수출 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음. 또한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의 더딘 회복은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어 2024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3.2~3.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베트남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4~4.5%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했음.

[Vietnam plus 1.4]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SD Binh Thuan Offshore Wind Powe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e.kim@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기관명 :SD Binh Thuan Offshore Wind Power Plant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위치 : Binh Thuan province, Vietnam▪ 규모 : 약 100억 달러 (잠정)▪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자본(20%) 및 커머셜론(80%)▪ 프로젝트 단계 : Preparing for FS report▪ 입찰방식 : 추후결정▪ 세부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기간 : 2023~2025- 사업지 면적 : 61,500 ha- 설치용량 : 2,940MW- 상업운전시기 : 2027년- 터빈 갯수 및 용량 : 약 270 개, 11MW / 터빈 1개



호치민시한국교육원, 베트남 중부지역 한국어교원 집중연수 개최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한국교육원(원장 길호진)은 22~26일 베트남 중부지역 한국어 채택학교 확대를 위한 예비 한국어교원 대상 집중연수를 개최중이라고 밝혔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과 공동개최한 연수에는 김정숙 고려대 교수 등 3명의 한국어 전문가가 다낭에서 베트남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원리 및 활용 ▲듣기·말하기 교수법 ▲성취도 평가 등을 한국어 교재 및 평가 등에 대해 합숙교육을 했다. 연수에는 예비 한국어교원 36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모두 다낭 지역 중·고교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호치민시한국교육원은 지난해 8월 베트남 교육훈련부로부터 활동범위를 기존 호치민시에서 다낭 이하 남부지역으로 확대 허가를 받았으며, 이어 10월 다낭교육청과 관내 중·고교에 한국어 교육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특히, 다낭교육청의 관내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34개교 5700여명 규모의 한국어 교육 희망을 확인하고, 양질의 교원 배치를 위해 다낭 외국어대, 동아대, 유이떤대(Duy Tan) 한국어 교수 36명을 예비교원으로 확보했다. 다낭교육청을 통해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인 교민과 관광객이 늘어나는 지역 특성과 맞물려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 뎀 린(Mai Tan Linh) 다낭교육청 부청장은 집중연수 개강식에 참석해 “다낭 관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부성 주다낭 한국총영사는 공관 차원의 외교·행정적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임영담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 개최, 맞춤형 교재 지원을 약속했다. 길호진 호치민시한국교육원장은 “호치민, 달랏에 이어 다낭에서도 정규학교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나짱, 꾸년 지역 등으로 교육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푸드시스템 현지 도입, 아워홈 베트남

이상복 법인장

아워홈 베트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워홈은 2017년 하이퐁 법인을 설립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국내 푸드시비스 시장에서 입증한 선진 푸드시스템을 현지 시장에 도입하여 식당 운영과 위생 매뉴얼을 확립하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메뉴 현지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내식당에서는 현지식 메뉴를 제공하는 ‘브이푸드(V-Food)’ 코너와 함께 쌀국수 등 면요리를 즐겨먹는 베트남인들의 식성을 고려해 누들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워홈 푸드시비스는 금세 입소문을 타며 진출 6년만인 현재 60여 개 점포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아워홈은 베

트남 하이퐁 지역을 넘어 현재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지역으로 점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식품 수출·입, 유통 사업을 위한 베트남 호치민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LOTTE, AEON, K-MARKET 등 베트남 주요 유통 채널을 확보하여 국내 생산 HMR 제품을 판매 중이며, 한국 본사를 위한 현지 식재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하이퐁에 호텔 사업을 시작하여 고객이 편안하게 호텔을 이용하고 질 높은 식사 서비스를 통해 출장자, 여행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호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아워홈은 2017년 베트남 법인 설립과 함께 1호 단체급식점포를 수주했습니다. 베트남은 당사 해외 거점(한국, 미국, 중국, 폴란드, 베트남)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입니다. 아워홈은 단체급식사업과 함께 식자재 유통, 식품 수출·입,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출 초기 단체급식 운영 종합 프로세스 구축을 주안점으로 두었습니다. 현지 식재 공급업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식품 안전을 진단하고 위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책자로 만들고 공유하여 식재료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수주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FPT그룹의 자회사 FPT EDUCATION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 FPT교육의 사립학교(10개)와 향후 개교 예정 학교의 학생식당까지 운영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국·탕·찌개 등 HMR 제품과 어묵, 조미김 등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길거리 판촉, 고객반응조사, 시식·시음행사 등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식품 판매 채널을 넓히고 HMR 상품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워홈이 운영하는 베트남 호텔의 이름은 코비(KOVIE) 호텔입니다. KOREA+VIETNAM의 합성어로 총 106개 객실(레지던스 14객실+표준룸 92객실)로 구성됐으며, 수영장, 스카이버, 커피숍, 미니마트, 사우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회의실 등 출장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호텔 이용 고객 대부분은 조·석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데, 5성급 호텔 F&B 경력의 한국인 수셰프가 직접 음식을 조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베트남 사업은 어느나라보다 경쟁이 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세계에서 주목하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며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기업 간 시장점유율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베트남 급식 시장은 크게 공장, 학교, 오피스, 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지 급식 시장 성장세에 따라 운영 코너 다양화, 안정적인 운영 체계 등 체계적인 급식 운영에 대한 현지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인력 문제, 운영 노하우 부족 등 요인으로 체계적인 급식 문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피스 급식 환경도 동일하며, 특히 규제 등 제한적인 요인으로 외부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식품) 식품유통시장은 주요 소비층에 따라 사업 방향성이 다르지만, 가격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아워홈의 경우 K푸드, HMR 제품 등을 베트남 현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구매 경쟁력 확보로 원재료 가격을 낮추면서 제품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호텔) 최근 많은 5성급 브랜드 호텔이 베트남 주요 지역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유리한 주요 중심 지역을 선점하고, 글로벌 브랜드 호텔 간 제휴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중·소형 호텔의 경우 서비스 강화, 프로모션 실시 등 특별한 전략을 통해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베트남 경제가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낮은 식단가, 급증하는 식자재 가격 등으로 국내 대비 수익성이 높은 시장은 아닙니다. 이에 원재료 구매 경쟁력, 효율적인 인원 배치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글로벌통합메뉴, 스피트코너, 일품현지식 메뉴 및 K푸드 제공 등 메뉴 차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단체급식사업은 전문 인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조리 전문 설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반면 베트남은 식품위생, 식자재 품질 관리, 전문 인력 부재 등 노하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한국에는 영양사라는 단체급식 관련 전문 직업군이 있지만 베트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워홈은 국내 식자재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음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운영 방안을 개선시켰습니다. 아워홈이 진출할 당시 타 급식 업체의 경우 대부분 세팅 배식(음식을 세팅해 놓고 고객이



식사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자는 목표와 함께 높은 베트남 기온으로 인해 상온에 장시간 음식을 노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 ‘대면 배식’ 방식을 도입해 고객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현지 조리, 운영 관련 근로자의 역량을 국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조리 전문 교육 및 위생 안전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자체 위생 교육과 점검을 담당하는 전문 팀을 본사에서 파견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 활동을 실시해 현재 국내 수준까지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매년 2회 이상 방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아워홈은 베트남 단체급식 운영 점포 확장, 수출 상품 확대 등 사업강화와 함께 현지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하여 사업 다각화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업별 중점 사업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베트남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해외 기업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 산업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기업의 방향성을 접목시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베트남 경쟁법 살펴보기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베트남은 지난 2019년부터 15년만에 경쟁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장에 보다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시장이 고도화 되어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경쟁법의 적용은 아직 많은 케이스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점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구하고 있기에 기업들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경쟁제한 행위의 금지

베트남 경쟁법은 경쟁 제한 행위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는 경쟁제한협약(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시장경제 내에서 참여자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할 것이며, 베트남 법률에 따른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경쟁제한협약(담합)

베트남 경쟁법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협약(담합)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 관련 동종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고정시키는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의 소비자, 소매 시장, 상품 공급원, 서비스 제공 구분 행위에 관한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의 판매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구입, 판매량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협약
-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입찰에 참여할 때 특정 당사자 혹은 당사자들이 낙찰 받도록 하는 협약
- 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 억제, 금지하는 것에 관한 협의
- 계약 당사자 이외의 시장 기업의 제거에 관한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 제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기술적 개발 및 투자 제한에 관한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 시장에 경쟁 제한적 효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도록, 타기업의 상품/서비스 구매 혹은 판매 계약서에 합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타기업이 협약 주제와 관해 어떠한 직접적인 연결도 없는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이외의 기업으로부터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소매를 제한하는 협약
-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 협약

경쟁법 14조에 따르면, 협약으로 인해 소비자가 이득을 얻거나, 베트남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 제품에 대한 표준 품질 적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기 경쟁 제한 협약들은 일정 기간 동안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 제한 협약 결정 이전에 국가 경쟁 위원회에 면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집단이 공동으로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경쟁법 26조에 명시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거나 전체 시장 점유율 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시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시장에서 총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보유한 두 기업
- 관련 시장에서 총 시장 점유율 65% 이상을 보유한 세 기업
- 관련 시장에서 총 시장 점유율 75% 이상을 보유한 네 기업
- 관련 시장에서 총 시장 점유율 85% 이상을 보유한 다섯 기업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집단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 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낼 수 있는 가격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비합리적 상품 혹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 또는 최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상품/서비스의 생산/유통 제한, 시장 제한, 기술 발전 방해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
- 유사한 거래에서 유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적용하여 타 기업의 시장 진입/확장을 막거나 배제하거나 할 수 있는 행위
- 타 기업에 계약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판매 계약 조건을 부과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계약의 주제와 직접적이 관련이 없는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여, 타 기업의 시장 진입 혹은 확장을 막거나 제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기업결합 신고

그 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 베트남 경쟁법상 기업결합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 신고절차로서 당사자가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 및 M&A를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큰 기업간의 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대상은 인수합병 이후 연관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하는지 등이 주요한 지표가 되는데, 연관시장에 대한 정의, 개념,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히 공개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 제출해야 하는 바,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일반적인 M&A 과정에서 요구되는 외국인 지분취득 승인절차가 요구되는 것과 유사하게 MOU 또는 IPA를 체결한 뒤 해당 내용을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산업통상부(MOIT)와 경쟁 및 소비자보호국(Vietnam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이며, 거래규모, 중요성, 거래에 따른 경제적 집중 변동에 따라 VCCA의 예비평가 수준에서 승인을 내릴 수도 있으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커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 평가가 진행되어 경쟁 억제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소가 요구됩니다.

마치며

현재까지 베트남의 경쟁법은 시장플레이어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장이 소수의 공급자들만 존재하는 시장들이고, 이러한 시장참여자들에 대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인정 한다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참여자의 참여가 요구될 것이고, 따라서 경쟁법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감사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이번호부터 새롭게 회계/세무파트를 맡아 기고하게 된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가 얼마전에 끝났습니다. 각 법인들 마다 순조로운 회계감사 수검 및 법인세 신고를 준비중일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호부터 회계감사시 매년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삼을까 합니다.

1.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관리는 한국투자법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조법인들 입장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계정입니다. 재고자산의 적절한 관리가 바로 손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즉, 재고자산의 정확한 기록은 대차대조표상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고,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에도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재고자산 및 제조원가 등을 정확히 산출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기말 현재의 수량과 각 개별 제품단가입니다. 먼저, 재고자산의 금액 확정을 위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기말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원자재, 부자재, 재공품, 반제품 및 완성품 등에 대한 수불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말 현재 재고자산으로 대변되는 원부자재, 재공품 등에 대한 수량의 확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창고에 얼마만큼의 재고자산 수량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재고자산 실사를 통해 확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법인들은 재고자산 수불부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창고 입출입을 기준으로 한 수불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기말수량=기초수량+매입수량-출하수량'으로서 그 재고자산의 수량에 대한 기록을 수불부에 하게 됩니다. 도난이나 멸실, 또는 기록의 오류가 없다면, 수불부에 남아 있는 각 재고자산별, 품목별 수량은 12월 31일 현재 실제 수량확인을 했을 때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난이나 멸실 또는 기록의 오류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두 가지의 데이터가 100%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베트남에서는 그 수량에 대한 차이가 한국과는 다르게 너무나 큰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는 합니다. 설령,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하더라도 그 차이에 대한 원인만 밝혀낸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차이에 대한 원인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재고자산 수량에 대한 확인이 적어도 월별로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법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업무형태가 사실 문제시 되고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법인이 많다는 뜻이지요. 재고자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인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도난이나 멸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도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베트남 관리직원 역시 제대로 이를 챙길리가 만무하며,

아무리 법인 입구에서 경비원들을 통해 소지품 검사를 하더라도 그 도난 내지는 멸실율을 감소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노이 인근을 위시한 베트남 북부지역 법인들은 많은 경우가 휴대폰 납품을 하기 위한 생산법인이라, 그 재고자산의 사이즈나 작아 도난이나 멸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불량재고관리 미흡입니다. 불량재고수량 역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수량이므로 재고자산 수불부에는 이 불량재고에 대한 수량 역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불량재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량은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인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량재고 수량관리에 대한 이유는 바로 품목단위당 원가 및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품목단위당 원가 및 매출원가만 언급 드리자면, 품목단위당 원가는 바로 기말 재고자산 수량에 곱해져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확정 짓기 위한 중요한 숫자인데, 이 품목단위당 원가는 기초부터 1년 내 매입한 금액(수량*매입단가)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총 매입한 수량을 나누어 결정을 하게 되므로, 매입한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불량재고에 대한 수량확인이 무시된다면, 이에 대한 원가가 모두 매출원가로 집계가 되든지, 아니면 매입자료를 조작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결국 품목단위당 원가금액 산출에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도 틀려지게 되며, 매출원가 역시 정확한 금액이 반영될 수가 없겠지요. 이는 대부분의 법인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지재고조사법 및 총평균법(내지는 이동평균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인으로, 물리적인 관리소홀인데요. 규모가 큰 법인들 같은 경우는 창고동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제조업만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건, 수출제조업 및 임가공업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건, 물리적인 관리소홀로 인해 실제 수불부에 있는 재고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안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수출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법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재고자산이 엄밀히 구분되어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창고안에 일부 원부자재가 섞여 보관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가공을 위한 재고자산은 베트남내에서 현지 구매한 일부 부자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재고자산이 위탁 받은 재고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회계감사시 주로 접하게 되는 오류 및 문제점들을 재고자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법인들이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등에는 무척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관리적인 측면도 보다 세심하게 챙기시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재원의 다른 분쟁해결 서비스

대한상사중재원 유하영 소장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법정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중재 외에도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재 외에 중재원의 다른 분쟁해결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선은 각종 민,상사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분쟁해결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알선은 비용이 들지 않고, 당사자 간의 비밀을 보장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거래 관계를 지속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 성공률은 50-60%입니다.

이럴 땐 알선을 이용하세요.

- 중재합의와 상관없이 각종 민,상사분쟁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가능
- 무료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소송, 중재에 앞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
- 분쟁금액이 소액이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은 조정입니다. 조정은 분쟁해결 전문가인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조정에서는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면 분쟁해결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럴 땐 조정을 이용하세요

- 민,상사 분쟁에서 소송,중재에 앞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스스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엄격한법적기준보다당사자간의 거래관행이나도덕적 측면등을 반영하여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경우
- 당사자 간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비공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은 2024년부터 국제조정규칙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상거래분쟁의 해결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세관의 통관 신고 및 품목분류 유의사항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우리 진출기업이 베트남에서 가공 무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에 대한 수입 신고 및 완제품의 수출 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흔히 행하는 신고 오류 사항 및 품목 분류 오류로 인해 적용 세율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 온라인 신문(hai quan online)에서 나온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품목분류 및 신고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품목분류 원칙 및 세율 혜택 유의

하노이 세관국 세관 감찰 관리과의 부국장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부정확한 HS code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제 97류까지의 세율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써 수출입세율표 부록 2의 제 2목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의 독특한 제도인 제98류에 규정된 개별 수입 우대 세율(세율 번호 B02나 B17)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임에도 일반 MFN 우대 세율인 B01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기업이 많다.

예를 들어, 제98.49호에서 세율 우대 정책에 따른 자동차 조립 및 생산을 위한 수입 부품에 대한 우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부속품에 대한 신고 정보 부족으로 우대 프로그램에 따른 우대 세율 0%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노이 세관은 기업들이 98.49호의 우대 세율로 신고 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품명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부품번호(기업이 관리를 위해 붙이는 개별 번호 체계), 부품명(품명, 규격, 세부 사양, 구조 및 성분, 모델, 특징, 용도, 시리얼번호 등 상세 정보 포함), 프로그램에 등록된 생산 및 조립 차량 모델명 등

그리고, 베트남 또한 한국과 동일하게 WCO 체약국으로, 6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른 품목분류가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규정 및 호의 용어에 따른 통칙 제 1호에 따른 해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 71류 주규정 10에서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사무용·종교용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은 재질의 수저나 접시와 같은 식기류의 경우 비금속제의 식기가 분류되는 8215.10.00호(MFN세율 25%, EVFTA세율 12.5%)가 아닌 7114.11.00호(MFN 세율 30%, EVFTA세율 22.5%)에 분류되어야 하나, 품명만을 확인하여 전자의 세율에 분류함으로 인해 세율 차이 발생 시 추후 그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 이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품목분류 기초가 되는 충분한 품목 정보 신고 필요

또한 하노이 세관 당국은 기업들이 품목분류의 근거가 되는 성분, 구조, 용도, 화학식 등 품목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예를 들어 전기 절연용으로 쓰이는 0.1mmx80mm규격의 크라프트지는 4804.31.10호에 속하지만, 중량, 표백여부, 색깔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해당 세번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구리 표준 동판(N0781097규격 준수)으로써 50장 단위 포장, 실험실에서 광도계용 부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100% 신제품이며 HSK : 퍼킨 엘머” 제품의 경우 7409.19.00호에 분류되나 기업의 두께 정보 미신고로 해당 세번에 분류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또한 수출입 세율 표 상 품목번호와 맞지 않는 물품이 신고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수출 물품에 대해 10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된 물품이나 기업이 8단위 까지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리석에서 생산한 탄산칼슘 분말로 제조된 석재로써 규격 0.12mm인 것”은 수입 세율표 상에는 2517.41.00호로만 분류되어 있으나, 수출 세율표 상에는 크기에 따라 2517.41.00.10호에서 2517.41.00.90호까지 10단위가 세분화 되어 있어 2517.41.00.20호까지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패널티 유의 필요

만일 HS code 신고 오류 발생 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또한 세액 차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세율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HS code 신고 오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만일 HS code 신고 오류로 인한 과소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소 세액의 일정 비율(자진 신고 시 10%, 세관 적발 시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가 0.03%/1일 단위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HS code 신고오류가 발생하였으나 관세율 차이는 없는 경우 신고건당 100만동~200만동의 범칙금 대상으로, 범칙금 또한 자진 신고로써 50% 경감이 가능하다.

한국과 베트남 양 국은 WCO에서 정하는 6단위 HS code까지는 동일하게 분류하나, 세부 분류에서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 10단위,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들과 동일한 8단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세율표 상 용도에 따라서 10단위까지도 세분화하는 품목이 있음에 유의가 필요하며, 한국의 10단위 HSK를 베트남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세부 품명을 확인하지 않고 기타 세번으로 분류하면서 Hs code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당사자들의 유의가 필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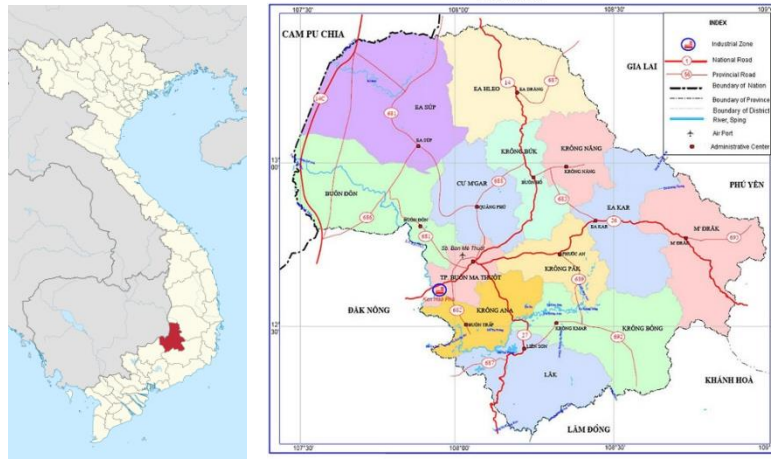
참고 : 베트남 세관총국 온라인 신문 - 품목 분류 유의 사항 기사 참고 [Một số lưu ý trong khai báo và phân loại hàng hóa \(haiquanonline.com.vn\)](#)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닥락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13,062km² ▪ 인구: 1,918,440명 ▪ 도시거주 비율: 24.93%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닥락성은 카페, 고무, 축제로 유명한 중부고원지역[페이응웬(Tay Nguyen)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 페이응웬(Tay Nguyen) 지역은 꼰똌(Kon Tum)성, 잘라이(Gia Lai)성, 닥락(Dak Lak)성, 닥농(Dak Nong)성과 램동(Lam Dong)성을 합쳐 부르는 지역에 대한 명칭임. ▪ 닥락성은 동쪽으로는 카잉호아(Khanh Hoa)성 및 푸옌(Phu Yen)성, 북쪽으로는 자라이(Gia Lai)성, 남쪽으로는 램동(Lam Dong)성, 서쪽으로는 닥농(Dak Nong)성 및 캄보디아와 인접해 있음. ▪ 부온마투옷(Buon Ma Thuot)시는 닥락(Dak Lak) 성의 중심 도시이며 전체 중부고원지역의 중요한 경제·문화·정치적 연결 중심지가 되어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성 전체의 총 길이는 16,042.32km에 달하며 그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총 684.57km의 7개 있음[14번, 26번, 27번, 29번, 19C 국도, 호치민 로드, 쩌엥선동(Truong Son Dong) 로드] ▪ 성도로: 총 351.3km의 11개 있음 ▪ (항공):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공항
GRDP 성장률 / 1인당 GDP('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GDP 성장률: 8.48% ▪ 성 1인당 GDP: US2,403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US 15.86억 달러 / 총 수입액: US 4.04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1.35%), 서비스업(10.02%), 농수산업(5.94%)
산업구조('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16.2%, 서비스업 42.27%, 농수산업: 37.22%
노무여건('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령 인구 비율: 59.52% ▪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62% ▪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17.98%
최저임금('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ND3,250,000= US135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2.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닥락성의 총 외국인 투자는 26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6.68억 달러 ▪ (한국) 4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0.24억 달러, 닥락성에 투자한 8개의 국가 중 건수 기준으로 5위, 투자액 기준으로 8위 규모

투자환경



다락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도로) : 다락성을 관통하는 주요 국도

- 14번 국도: 호치민시, 자라이성, 꼰똌성과 연결됨
- 26번 국도: 카잉호아(Khanh Hoa)성과 연결됨
- 27번 국도: 람동(Lam Dong)성과 연결됨
- 29번 국도: 푸옌(Phu Yen)성과 연결됨

(항공):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공항은 부온마투옷 도심에서 7km만 떨어져 있으며, 하노이 시, 호치민 시, 다낭(Da Nang) 시, 타잉호아(Thanh Hoa) 성, 빈(Vinh) 시, 꼰터(Can Tho) 시, 하이퐁(Hai Phong) 시까지 직항편이 있음.

(해로): 다락성에는 해로나 내륙 수로 교통이 없으나, 성의 강 시스템은 길이가 544km이고 그 중 약 100 km는 수로 운송이 가능하지만 주로 관광 및 건설 모래 채굴에 사용됨.

➤ 관광

다락성은 지역 내 여러 민족 집단의 생태관광 및 문화 전통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곳이 많은 장점이 있음. 성에는 락(Lak) 호수, Dray Nur(드레이느) 폭포, Buon Don(부온돈) 관광 지역, Kota m(고팜) 관광 지역, Yok Don(옥돈) 국립공원, Chu Yang Sin(즈양신) 국립공원 등 유명한 관광 지역이 많이 있음. 온마투옷(Buon Ma Thuot) 커피 축제는 2년마다 3월에 대규모로 개최되며, 전 세계의 수많은 유명 커피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대거 모임. 다락성은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의 구전된 걸작으로 인정한 베트남 중부고원 공 문화 공간(Space of gong culture)을 육성하는 요람 중 하나임. 공은 베트남 중부에 사용하는 고대 전통악기이며, 떼이응웬(Tay Nguyen)의 공 문화 공간은 공, 악보, 연주하는 사람들, 공을 사용하는 축제, 축제가 열리는 장소 등의 요소를 포함함.



락(Lak) 호수



Dray Nur(드레이느) 폭포



Buon Don(부온돈) 관광지역



Yok Don(욕돈) 국립공원



2023년 부온마투웃(Buon Ma Thuot) 커피 축제

➤ 토지자원

닥락성은 농림수산물 생산을 심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조건이 많이 있으며, 이는 가공업과 제품 소비 개발과 연관되어 있어 국제 및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성의 주력 농림수산물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음.

▶ 에너지자원

닥락성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 개발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일조량이 많고 평균 열복사가 약 4.7~5kWh/m²/일로 성의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연평균 풍속은 6m/s 이상으로 성의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 개발 동력

2020년 닥락성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에 관한 제1110/ TTg-CN 공식문(2017.07.28)에 따르면 닥락성은 2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 호아푸(Hoa Phu) 공단: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시 호아푸(Hoa Phu)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총면적(150ha 확장 포함)은 330.23ha임.
- 푸수안(Phu Xuan) 공단: Cu M'gar 현 Ea Drong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총 예상 면적은 325.6ha임. 현재 투자 정책 승인을 받기 위해 총리에게 제출 중임.

2021~2030년 기간의 닥락성 계획과 2050년 비전(현재 국무총리의 승인을 위해 제출 중임)에 따르면, 새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단지는 M'Drak 공단(300ha), Ea Kar 공단(480ha), Ea H'leo 공단(400ha)임.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 농촌 농업 투자 장려 정책에 대한 제57/2018/ND-CP 의결서(2018.04.17)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모든 현 및 부온호(Buon Ho)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 특별 투자우대 분야: 전체 기간 면제 • 투자우대 분야: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미등록 분야: 11년간 계속 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세율 20% •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부 터 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 특별 투자우대 분야: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11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미등록 분야: 7년간 계속 면제

투자분야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농업,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 •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첫 15년간 면제, 이후 7년간 50% 임대료 감면 • 투자 정려 분야 프로젝트: 첫 11년간 계속 면제, 이후 5년간 50% 임대료 감면
사회화(교육훈련, 의료, 문화, 스포츠, 환경, 사법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온마투웃(Buon Ma Thuot) 시 - 모든 동: 토지임대료 25년간 면제, 잔여기간 임대료 70% 감면 • 부온마투웃(Buon Ma Thuot) 시 - 모든 마을: 토지임대료 25년간 면제, 잔여기간 임대료 85% 감면 • 모든 현 및 부온호(Buon Ho) 군: 100% 면제

-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b-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2년 12월말까지 닷락성 대상 총 외국인투자는 26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6.68억 달러 투자금액이 등록되어 있음.

➢ 닷락성 내 10대 FDI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백만달러)
1	그네(Cu Ne) 1 풍력 발전소	풍력발전소 건설, 관리, 운영에 대한 투자	싱가포르	94
2	그네(Cu Ne) 2 풍력 발전소	풍력발전소 건설, 관리, 운영에 대한 투자	싱가포르	83
3	커피 가공 공장 프로젝트	인스턴트 커피 및 액체 커피 생산; 커피 구매, 판매, 수출입	인도	80
4	그롱북(Krong Buk) 2 풍력 발전소	풍력발전소 건설, 관리, 운영에 대한 투자	싱가포르	79.4
5	그롱북(Krong Buk) 1 풍력 발전소	풍력발전소 건설, 관리, 운영에 대한 투자	싱가포르	78.7
6	Beta VNM 풍력 발전소	풍력발전소 건설, 관리, 운영에 대한 투자	싱가포르	67.3

No.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백만달러)
7	Alpha VNM 풍력 발전소	풍력발전소 건설, 관리, 운영에 대한 투자	싱가포르	27.9
8	신발의반제품 생산 공장프로젝트	신발부품 생산	한국	22.5
9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쇼핑몰 투자 프로젝트	쇼핑몰 건설, 개발 및 사업관리 투자	태국	13
10	Dakman Viet Nam Co., Ltd	커피 및 코코아를 구매 및 가공 코코아	영국	10.6

▶ 한국 투자

닥락성에는 한국투자자는 4개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0.24억 달러 투자금액이 등록되어 있음. 닥락성에 투자한 8개의 국가 중 건수 기준으로 5위, 투자액 기준으로 8위를 차지하고 있음.

▶ 닥락성 내 한국 투자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금액 (US백만달러)
1	신발의 반제품 생산 공장프로젝트	신발부품 생산	22.5
2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 [부온마투옷(Buon Ma Thuat)시 탄랍(Tan Lap) 구 도이투이반(Doi Thuy Van) 신도시지역]	골프연습장 건설에 투자	1.8
3	Daklak Human And Nature Limited Company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거래, 약 원료 재배 및 수출	0.23
4	JVEC 한국어연수원 프로젝트	한국어연수, 번역, 유학컨설팅	0.1

공단 현황

▶ 공단정보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ha)	주요 정보	인프라 개발사
호아푸(Hoa Phu)	2007	33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유치산업: 첨단 농산물 가공, 농업생산 위한 기계 공학 등 전체 면적 중 현재 확장된 면적인 150ha에 추가 투자를 유치 중임 	Hoa Phu Industrial Park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닥락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산하)

투자 유망분야

닥락성의 잠재력과 강점을 기반으로 다음 분야에 집중을 두고 있음:

(농업)

- 대규모 농업 생산 촉진함
- 유기농업, 가치사슬 따라 보존, 가공 및 소비와 관련된 첨단기술 응용을 우선시함
- 대규모, 현대적, 생물안전적 집중화 축산업 지역 조성을 촉진함
- 산림 관리, 보호, 개발 및 산불 예방을 강화함
- 산림녹화에 집중하여 산림 커버율 향상에 기여함

(산업)

심층 가공, 재생 에너지, 농업 생산 및 가공을 위한 기계 공학, 소프트웨어 산업 등 우세산업의 개발을 촉진함

(건설)

사업 단지, 클러스터의 인프라 투자, 특히 기준에 맞는 폐수처리 시스템 구축에 투자함

(무역-서비스)

- 쇼핑몰, 슈퍼마켓, 현대성과 결합된 전통시장 투자 및 개발을 장려함
- 생태관광, 금융, 은행, 보험, 운송, 물류, 교육, 의료, 과학 등 고가치 잠재력, 이점 및 고부가가치를 지닌 서비스업의 품질과 경쟁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킴

투자 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닥락성 공단 관리위원회	Mr. Nguyen Nam Anh 부사무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987 455 857▪ Email: anhnn@bqlkcن.daklak.gov.vn▪ Website: https://bqlkcن.daklak.gov.vn
투자진흥센터 닥락성 투자계획청	Ms. Nguyen Thi Hoang Dung 투자진흥실 부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939 221 589▪ Email: hoangdungv17880@gmail.com▪ Website: http://ipc.daklakdpi.gov.vn



2024 베트남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 가. 시장전망
 - 나. 주요 경제지표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가. 공급망 협력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나.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 8) 확정 발표
 - 다. 양국 세관 분야 협력 강화로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라.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위기와 기회의 상존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ESG, 시장트렌드 포함)
2. 시장분석
 -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나. 수출
 - 다. 투자진출
 - 라. 프로젝트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 가. 교역
 - 나. 투자
 - 다. 협력유망분야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2.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KOTRA 해외경제정보](#) > [국가별정보](#) > [국별진출전략](#)에서 확인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3. 12 20 기준 누계		2023. 1. 1 ~ 1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863	85,865.80	472	1,840.88	4,400.94
싱가포르	3,494	74,519.37	410	3,769.98	6,803.51
일본	5,264	73,962.94	302	2,856.35	6,566.04
대만	3,104	39,315.86	210	2,246.22	2,883.82
홍콩	2,458	34,124.02	315	3,413.01	4,684.04
중국	4,230	27,479.06	707	3,544.39	4,470.89
버진아일랜드(영)	910	22,724.02	25	48.04	225.57
네덜란드	432	14,205.69	20	275.93	805.76
태국	735	14,054.61	57	490.59	879.5
말레이시아	733	13,106.89	37	6.94	442.19
미국	1,336	11,826.73	124	113.09	626.32
기타	6,581	57,732.55	509	1,580.20	3,819.04
전체 합계	39,140	468,917.54	3,188	20,185.62	36,607.63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3. 12 20 기준 누계		2023. 1. 1 ~ 1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6,875	283,026.23	1,075	15,850.07	23,504.98
2	부동산 경영	1,135	68,045.86	68	982.24	4,665.76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4	40,671.39	12	2,090.94	2,373.42
4	호텔, 외식서비스	986	14,338.97	62	30.76	84.03
5	건설	1,820	10,909.30	40	74.5	289.36
6	도소매, 유지보수	7,010	10,988.45	942	439.19	1,261.95
7	물류운수	1,094	6,127.79	117	220.67	463.78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497	5,450.13	403	179.64	1,285.00
9	정보통신	2,938	5,121.87	291	51.29	416.55
10	채광	108	4,892.57	-	-	1.03
11	교육, 양성	687	4,615.72	69	13.18	47.51
12	농, 임, 수산	536	3,869.87	19	48.34	61.98
13	예술 오락	144	3,165.99	5	7.39	13.62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6	3,158.22	3	115.75	116.1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7	1,763.69	4	7.05	362.39
16	행정, 지원 서비스	618	1,065.19	59	23.16	58.61
17	금융, 은행, 보험	96	927.73	11	7.58	1,555.89
18	기타 서비스	152	767.51	8	43.87	45.58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9,140	468,917.54	3,188	20,185.62	36,607.63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20	2021	2022	2023
수출	2,826.5	3,363.1	3,713	3,546(-4.6)
수입	2,627	3,322.3	3,589	3,263(-10.3)
무역수지	199.5	40.8	124	28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183	57,537	57,994	52,379(-9.7)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44,576	50,828	55,536	57,336(+3.2)
기계/플랜트 및 부품	27,193	38,344	45,751	43,128(-5.7)
섬유/직물제품	29,809	32,753	37,566	33,329(-11.4)
신발류	16,791	17,751	23,895	20,237(-15.3)
원목 및 목제품	12,371	14,809	16,011	13,467(-15.9)
철강제품	5,258	11,795	7,993	3,973(-14.5)
수송수단 및 부품	9,090	10,616	11,988	14,157(+18.1)
수산물	8,412	8,886	10,923	8,971(-17.8)
원사(Yarn)	3,736	5,612	4,713	4,355(-7.6)
기타	74,235	87,379	98,934	103,339
합계	282,654	336,310	371,304	354,671(-4.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전자제품 및 컴퓨터	63,971	75,440	81,884	87,965(+7.4)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251	46,296	45,192	41,579(-7.9)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645	21,434	21,126	8,749(-58.6)
의류(원단)	11,875	14,324	14,706	13,016(-11.5)
플라스틱 원료	8,397	11,685	12,387	9,755(-21.2)
각종 철강	8,066	11,523	11,920	10,425(-12.5)
기타 비금속	6,052	8,611	9,253	7,626(-17.6)
플라스틱 제품	7,274	7,959	8,119	7,508(-7.5)
화학제품	5,741	7,627	9,144	7,605(-13.0)
화학물질	5,016	7,735	8,747	7,726(-15.5)
기타	92,412	119,600	136,423	124,419
합계	262,700	332,234	358,901	326,373(-9.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1	미국	61,347	77,077	96,293	109,388	97,020
2	중국	41,414	48,905	56,009	57,702	61,207
3	한국	19,720	19,107	21,945	24,293	23,498
4	일본	20,413	19,284	20,128	24,232	23,314
5	홍콩	7,156	10,437	11,996	10,936	9,631
6	네덜란드	6,881	6,999	7,686	10,430	10,241
7	독일	6,555	6,644	7,286	8,968	7,400
8	인도	6,674	5,235	6,259	7,961	8,498
9	태국	5,272	4,917	6,161	7,476	7,192
10	영국	5,758	4,955	5,765	6,065	6,345
	기타	82,999	79,094	96,782	103,853	100,325
	합계	264,189	282,654	336,310	371,304	354,671(-4.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1	중국	75,452	84,187	109,874	117,866	110,644
2	한국	46,935	46,895	56,155	62,088	52,511
3	대만	15,173	16,701	20,772	22,631	18,421
4	일본	19,526	20,341	22,648	23,373	21,638
5	미국	14,365	13,713	15,270	14,470	13,822
6	태국	11,656	10,968	12,564	14,092	11,797
7	오스트레일리아	4,456	4,677	7,946	10,144	8,533
8	말레이시아	7,291	6,575	8,148	9,124	7,809
9	인도네시아	5,703	5,382	7,587	9,641	8,728
10	인도	4,538	4,435	6,950	7,086	5,864
	기타	47,975	48,826	64,320	68,386	66,606
	합계	253,070	262,700	332,234	358,901	326,373(-9.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48,178(-0.9)	48,510(0.7)	56,729(16.9)	60,972(7.5)	53,489(-12.3)
수입	21,071(7.3)	20,579(-2.3)	23,965(16.5)	26,726(11.5)	25,938(-2.9)
무역수지	27,107	27,931	32,763	34,246	27,550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반도체	10,730(-1.9)	11,501(7.2)	14,026(22)	16,240(15.8)	12,729(-21.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970(-10.5)	9,552(19.9)	12,050(26.1)	12,527(4.0)	12,350(-1.4)
석유제품	2,196(11.2)	1,196(-45.5)	1,157(-3.2)	3,733(222.3)	3,327(-10.8)
무선통신기기	2,932(11.4)	3,460(18)	3,315(-4.2)	2,358(-29.2)	2,166(-8.1)
합성수지	1,624(-2.1)	1,615(-0.6)	2,415(49.5)	2,581(6.9)	2,001(-22.5)
기구 부품	2,230(-4.4)	2,241(0.5)	2,405(7.3)	2,194(-8.8)	1,861(-15.1)
플라스틱 제품	1,210(0.4)	1,115(-7.8)	1,174(5.3)	1,067(-9.2)	1,021(-4.2)
철강판	1,157(10.4)	1,052(-9.1)	1,267(20.4)	1,069(-15.6)	887(-17.0)
기타기계류	842(-3.9)	686(-18.6)	717(4.5)	815(13.6)	801(+1.0)
계측제어분석기	783(12.4)	669(-14.5)	957(43.0)	793(-17.1)	734(-9.9)
기타	16,678	15,437	17,039	17,242	15,612
합계	48,178(-0.9)	48,511(0.7)	56,729(16.9)	60,972(7.5)	53,489(-12.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무선통신기기	5,691(17.6)	4,980(-12.5)	5,579(12)	5,986(7.3)	4,543(-24.1)
의류	3,646(2.1)	3,145(-13.7)	3,393(7.9)	3,840(13.2)	3,542(-7.7)
컴퓨터	679(25.9)	1,270(87.1)	1,659(30.6)	1,948(19.1)	2,075(+6.6)
반도체	471(19.1)	561(18.9)	750(33.8)	787(5.0)	2,053(+160.9)
산업용 전기기기	479(14.8)	574(20)	725(26.2)	970(33.8)	1,396(+44.0)
신변잡화	1,053(7.4)	1,029(-2.2)	984(-4.4)	1,250(27.2)	1,252(+0.1)
목재류	657(-17.1)	632(-3.9)	755(19.5)	942(24.8)	722(-23.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97(5.2)	1,027(-14.2)	876(-14.7)	783(-10.5)	657(-15.9)
기구부품	512(15.1)	481(-5.9)	624(29.6)	654(4.8)	571(-12.7)
영상기기	350(6.3)	391(11.8)	426(8.9)	441(3.6)	409(-7.2)
기타	6,331	6,474	8,161	9,103	8,718
합계	21,072(7.3)	20,579(-2.3)	23,966(16.5)	26,726(11.5)	25,938(-2.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2~2023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2년(연간)	%	3.6	7.6	8.7	5.3	8	
	2023년 3Q	%	0.7	5.9	3.3	4.9	5.3	
	2023년 4Q	%	2.8*	N/A	3.4	N/A	6.7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124.9	N/A	126.2	N/A	7.8%
		2023년 10월	-	132.9	9.1	133.0	N/A	4.1%
		2023년 11월	-	118.5	8.9	131.8	N/A	5.8%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2년(연간)	-	N/A	52.6	N/A	N/A	N/A
		2023년 10월	-	50.2	52.4	47.9	51.5	49.6
		2023년 11월	-	50.3	52.7	N/A	51.7	47.3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2년(연간)	-	108.4	N/A	N/A	119.9	N/A
		2023년 10월	-	115.1	N/A	78.9	124.3	N/A
		2023년 11월	-	114.9	N/A	78.9	123.6	N/A
	소매판매	2022년(연간)	-	100.3	4.5%	N/A	N/A	19.8%
		2023년 10월	-	102.3	3.4%	173.3	207.5	7.0%
		2023년 11월	-	105.4	2.9%	N/A	507.9	10.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6.1	5.8	N/A	4.2	3.2
		2023년 10월	%	4.7	4.9	1.8	2.56	3.59
		2023년 11월	%	3.6	4.1	1.5	2.86	3.45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2년(연간)	%	22.5	N/A	3.3	3.87	△11.0(누계)
		2023년 10월	%	N/A	N/A	N/A	N/A	14.7(누계)
		2023년 11월	%	N/A	N/A	N/A	N/A	14.8(누계)
고용	실업률	2022년(연간)	%	2.1	5.4	9.2	N/A	2.3
		2023년 3Q	%	2.0	4.2	3.4	5.3	2.3
		2023년 4Q	%	N/A	3.6*	N/A	N/A	2.26
무역	수출증가율	2022년(연간)	%	15.6	14.5	3.8	26.1	7.1
		2023년 10월	%	2.8	△17.5	△4.4	△10.4	5.9
		2023년 11월	%	2.6	△11.7	△5.9	△8.6	6.7
	수입증가율	2022년(연간)	%	20.1	17.3	25.0	21.0	8.6
		2023년 10월	%	△2.3	△4.4	△0.2	△2.4	5.2
		2023년 11월	%	2.5	0.02	1.7	3.3	5.1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베트남 일촌일품(OCOP) 연계 CSR 사업 수요조사

일촌일품(OCOP) CSR이란?



- 일촌일품(OCOP) 정책은 지역을 대표하는 원자재 혹은 1차 상품에 해당 지역의 전문성을 더하여 개발한 특산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 도입됨.
- 베트남 63곳의 성,시에서 다양한 OCOP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인증을 부여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OCOP와 CSR활동을 결합하여, CSR 활동 대상을 OCOP 로 한정된 개념

조사대상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한국 투자진출기업 중 CSR활동에 관심 있으신 기업 누구나 **업종, 기업규모, 지역 무관**
조사목적	OCOP 활용 CSR 프로그램 참여 수요를 파악하여 OCOP CSR 사업을 추진 하고자함.
설문조사	https://forms.gle/s9E1BfdDtmr4DQ6E8 (바로가기)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KOTRA >